

『영미어문학』 제103호
(2012. 6): 61-81

『1984』에 나타난 조지 오웰의 헤안 -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변 문 균(광양보건대학교)

I.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조지 오웰(George Orwell) 탄생 1백주년(2003년 6월 25일)을 맞아 그에 대한 평가가 새로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대체로 반공 작가, 풍자 작가 또는 우화 작가로서 취급되던 오웰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홍규는 『동물농장』(*Animal Farm* 1945)이 출간된 지 3년 만에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번역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작품인 *1984*(1949) 또한 신속하게 번역된 것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해외 정보국이 “반공 투쟁”의 일환으로 작품의 판권료까지 지불하며 오웰 작품의 국내 번역출판을 도왔음을 밝히고 있다(7). 그 결과 오웰의 작품들은 국내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심리적 공격이나 비판으로 읽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 작품을 “러시아의 집단적 유토피아 이상에 대한 긴 풍자소설”(신재실 외 338)이나, “반유토피아 정치소설”(허상문 334)로 인식하던 것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물농장』이나 *1984*를 집필한 오웰의 주된 의도는 전체주의에 반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오웰은 “전체주의는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시키며, 어떤 비교 기준도 없는 인위적인 우주 속으로 우리를 가두어버린다. 어쨌든 전체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사고와 감정까지도 완벽히 지배하려고 한다”(박경서 106-7 재인용)고 하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나타냈기 때문이다.

과연 반공작가, 풍자작가, 우화작가 그리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로서의 오웰

중, 올바른 오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는 오웰을 “극단적인 비인간적 공포를 알려주고자 했던 인정 많은 사람,” “사회주의 사상과 그 신봉자들에게 통렬하고 파괴적인 비판을 했던 사회주의자,” “인간 평등을 굳게 믿고 계급을 비판한 사람,” “언어의 오용에 대한 유명한 비판자,” “세밀한 관찰자이며 경험주의자”등으로 칭하였다. 나아가 오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윌리엄즈는 그가 용감하고, 너그럽고, 솔직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Williams 277; 284). 결국 여러 단편과 수필에 나타난 그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조지 오웰”이다. 파리와 런던의 뒷골목에서의 최하층 사람들과의 생활 경험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1933), 식민지 경찰로서의 체험을 보여준 『버마에서의 나날들』(*Burmese Days* 1934), 그리고 작가로서의 문학적,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한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 1936)는 그가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인간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오웰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원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다운 인간성을 지니는 것”(keep humanity human)(Calder 152)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들』(*We* 1922),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1932) 그리고 1984를 반유토피아(Anti-Utopia) 소설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오웰은 1984의 플롯, 주요 인물들, 상징들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러시아 작가 자미친(Yevgeny Ivanovich Zamyatin: 1884-1937)의 『우리들』에서 빌려왔다. 그런데 영국 소설가 중에서 자미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오웰만은 아니었다. 오웰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가 자미친의 소설로부터 “일부 나왔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이 사실이 “결코 적시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었다. 오웰의 견해에 따르면 자미친의 책은 헉슬리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며 “우리(=영국)의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이다(Deutscher 122). 결국 오웰이 자미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질책할 일은 아니며 그의 문학이 평가 절하될 일도 아니다. 이 작품들은 통제된 사회의 미래상을 통해 현실을 풍자하지만 서로 강조하는 점은 다르다. 『우리들』은 동유럽의 관료독재체제를, 『멋진 신세계』는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한 과학만능주의의 폐해를, 그리고 1984는 인간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과거조차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기말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20세기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게 많은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인간성 파괴의 현장과 인간 감시 사태는 오웰이 생존하던 당시의 걱정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작품이 발표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과연 오웰의 걱정들은 현재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으며, 그가 공포로 느꼈던 것들이 기우가 아니라 그의 해안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작품 속에 나타난 개인과 인간성 파괴, 그리고 빅 브라더에 의한 통제와 감시 사회의 현실을 전 세계적인 사회 현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인과 인간성의 파괴

1984에서는 오세아니아(Oceania)라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 생활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며, 역사와 기록은 수정되고, 언어는 파괴되고 사고 작용은 축소되며, 도덕이 타락하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 가정, 그리고 인간성 파괴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2.1. 개인 생활의 파괴

오세아니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런던의 진리부(the Ministry of Truth, 약칭 Minitrue) 기록국(the Records Departments)에 근무하는 윈스턴 스미쓰(Winston Smith)는 39세로 암시장에서 구입한 노트에 1984년 4월 4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원래 모든 집에는 텔레스크린(Telescreen)이 장치되어 각 개인의 활동을 낱낱이 감시할 수 있지만 윈스턴은 그러한 감시를 피해 일기를 쓴다. 물론 그가 일기를 적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형을 당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25년형을 받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하여 위험한 일기 쓰기를 시작한 것이다(변문군 351).

신어(Newspeak)로 “자신만의 생활”(ownlife)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주의와 괴상한 행동(eccentricity)을 의미했다. 따라서 혼자 있는 것은 국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개인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 생활의 파괴는 2011년 5월 중국 베이징의 중심도로인 창안제(長安街)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CCTV 녹화 장면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징화스바오(京華時報) 보도(2011.5.18)에 따르면 이 영상물은 2010년 5월 9일 오전 3시 37분 음주 운전자가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밀폐된 룸에서 양주 4병을 나누어 마시는 장면, 술집에서 나와 자신의 인피니티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순간 버스와의 충돌 장면, 사고 후 차 안에서 7분 동안 친구들과 대책을 논의한 뒤 밖으로 나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등을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범죄와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명분아래 중국 대륙 전체를 CCTV로 뒤덮고 있다. 베이징은 ‘비디오 베이징 안전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버스 내의 CCTV, 택시 안의 녹음시스템에 이어 베이징 전역을 감시카메라의 감시망 아래 놓고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 카메라가 잡은 영상을 자동적으로 분석,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시민 외출 동향 정보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위치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관리한다는 이 계획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누설 등 중국판 ‘빅 브라더’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한강우, 『문화일보』 2011.5.19; 박홍환, 『서울신문』 2011.5.21). 교통체증 관리 등으로 이용 목적을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연 이상과 같은 일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현재 강남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수많은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중국과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부산 북부 경찰서는 5월 23일 부산 모 대학 교수 K씨(5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아내와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특히 살해 추정 1주일 전인 3월 27일 오후 6시 45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한 매장에서 아내의 시신이 들어있던 것과 같은 제품의 가방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도 확보되었다. 또 그의 컴퓨터를 분석해 ‘사체 없는 살인’ 등과 같은 인터넷 검색 기록도 찾아냈기 때문이다.

컴퓨터 범죄 관련 전문가인 그는 내연녀와 범행 열흘 전부터 휴대폰 전화도 하지 않고 공중전화만을 사용했다. 또 CCTV에 신경을 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화면을 USB에 담아오기도 했다. 아내를 만나는 장소와 시신을 운반하는 길도 CCTV가 찍히지 않는 곳을 골랐다. 또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웠다. 하지만 시신을 담은 가방을 구입하던 장면은 매장 CCTV에 찍혀 있었고, 카카오톡 본사에서 지운 문자메시지는 경찰이 복원해 공범인 내연녀를 찾아낸 것이다(박영수, 『문화일보』 2011.5.23; 권경훈, 『조선일보』 2011.5.26). 감시 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감시사회의 도래를 반세기전에 예견한 오웰의 해안이 놀라울 뿐이다.

2.2. 가정의 붕괴

이 작품에서는 개인 생활의 파괴와 함께 가정이 붕괴되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윈스턴과 함께 진리부에 근무하며 1930년에 지은 낡은 아파트인 빅토리 맨션(Victory Mansions)에 사는 파슨즈(Parsons) 부부에게는 어린 남매가 있다. 어느 날 파슨즈가 잠을 자다 잠꼬대로 “빅 브라더 타도”라고 외치자 이것을 7살짜리 어린 딸이 듣고서 경찰에 고발한다. 이처럼 가족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잘못을 고발하기 때문에 모두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밀고자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제도란 인간 생활에서 없앨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는 옛날 방식 그대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권장되고, 부모들을 정탐하고 그들의 일탈행위를 보고하도록 키워진다. 결국 가정이 사상경찰의 한 조직이 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밀고자들에 의해 밤낮으로 감시를 당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밀고하는 일은 한국에서도 한 10대 소녀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철창신세를 지는 어이없는 사건에서 볼 수 있다. 이 아버지는 구속됐다가 13일 만에 무죄로 밝혀져 풀려났고 딸의 허위 신고에 충격을 받았지만, 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 중이던 A양(17세, 고1년 중퇴)은 지난 2월 대학생인 친언니에게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백한 뒤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고, 자매는 이 이야기를 더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4개월 뒤 아버지인 B(45)씨가 집 안에서 흥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자 자매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은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경찰은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성이 있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양의 일기장을 통해 남자관계를 알게 된 B씨의 형은 A양에게 사실을 밝히려고 추궁했고, B씨는 "허위 신고했다"는 딸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기록을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A양으로부터 "허위 신고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진술을 받았고, 결국 B씨는 구속 13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이날 A양을 무고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폭력적인 B씨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검찰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로 임신해 배가 불러오자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언니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형관 부장검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A양을 구속기소했다(김도윤, 『연합뉴스』 2010.8.20). 가정의 붕괴는 오세아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3. 역사와 기록의 수정

소설 속에서 당은 과거의 모든 기록을 현재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뜯어 고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은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가령 현재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Eurasia)와 전쟁을 하고 이스트아시아(Eastasia)와는 동맹을 맺고 있다. 그러나 4년 전만 하더라도 오세아니아는 이스트아시아와 전쟁을 하고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적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적이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당이 시키는 대로 믿고 모든 기록들이 바뀌어 진다면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될 것이다. 결국 과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과거는 현재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쳐진다. 이러한 사실은 당의 슬로건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32)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지워야만 하는데 이것을 오세아니아의 신어로는 “이중사고” (doublethink)라고 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항상 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기록국에 근무하던 사임(Syme)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기록에서도 말소된다. 또한 줄리아(Julia)도 지금은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지만 한때는 이스트아시아와 싸웠다는 것을 윈스턴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회미하게 기억해낸다. 그녀에게 적국의 이름 따위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 역사 조작의 모든 행위는 당의 무오류성(the infallibility of the Party)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빅 브라더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변조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오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다. 즉, “1939년 9월까지 모든 독일 사람들은 러시아가 볼셰비즘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야 했는데, 그해 9월 이후에는 볼셰비즘을 존경과 애정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했다. 몇 년 이내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러시아와 독일이 전쟁을 벌인다면 또 다른 급격한 변화가 똑같이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박경서 108 재인용).

이처럼 국가의 정책에 따라 역사를 바꾸고 조작하는 것은 지금도 세계 각

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중국의 경우에 과거에는 한족(漢族)에 포함시키지 않던 몽고족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청나라에 대항하여 그들을 무찔렀던 한 때는 자신들의 민족적 영웅으로 받들었던 명나라 장군에 대한 평가를 바꾸었다. 이와 같이 역사가 바뀌는 것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지금의 타이완은 “자유 중국”이었고, 중국은 “중공”이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자유중국도, 중공도 잘 모른다. 그들은 다만 중국을 알고 있을 뿐이다. 국제 정치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래된 우방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우방이라고 혈맹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도 어느 순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동해에 대한 미국의 일본 입장 지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역사 기록의 수정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2.4. 언어 파괴와 사고 작용의 축소

신어 전문가로 언어학자인 사임은 신어사전의 제 11판(*The Eleventh Edition of the Newspeak Dictionary*)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신어는 오세아니아의 공용어로 인간의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매년 그 어휘가 줄어들었다. 어휘가 축소되는 이유는 사임에 의해 밝혀진다.

“신어의 대체적인 목적이 사고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겠나? 결국 우리는 사상죄라는 것을 짓지도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표현할 말을 가진 단어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60)

사고 작용이 축소되면 결국 문학은 사라지고 언어의 의미 또한 변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의 세계가 오리라는 것을 사임은 인식하고 있다. 그는 너무 총명하며 사물을 명확히 바라보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당은 언젠가 그를 제거할 것이다(변문군 324-5). 때문에 곧 사임이 증발할 것이라고 윈스턴은 확신했었고, 이런 그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뉴스위크(*Newsweek*) 인터넷 판은 ‘인터넷이 죽인 것들 What the Internet Killed’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 14가지를 꼽았다. 여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기(9-to-5 Work Day), 비디오 가게(The Video Store), 집중(Concentration), 예의(Civility), CD(The CD), 전화번호부(The Telephone Book), 편지쓰기(Letter Writing), 휴가(Vacations), 프라이버시(Privacy), 사실(Facts), 폴라로이드와 같은 필름(Polaroids and Other Film), 참고서적(Reference Books), 연감(The Yearbook), 스트립쇼(The Peep Show)등이 들어 있다(Tracy, *Newsweek* 2010. 12. 8).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아날로그 시대의 소산인 음악CD, 폴라로이드, 비디오는 디지털 음원과 카메라, 그리고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합법·불법 영화로 대체된 지 오래되었다. 요즘 세상에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는 사람이 있을 리 없고, 줄업앨범마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만들어진다. 스트립쇼는 온라인에 널린 게 음란 동영상인데 사라질 만도 하다. 백과사전을 비롯한 사전이 사라진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편지 쓰기는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대신한다. 활자를 읽는 대신 디지털 화면으로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터넷에서 이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다. 예의는 당연히 사라진다. 9 to 5 정시 출퇴근이나 휴가도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세상이 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다. 마지막으로 사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풍문과 주장이 사실 대신 정보라는 이름 아래 범람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엄정한 사실을 찾는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거리를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졌다(하종오, 『한국일보』 2010.12.17).

그러나 뉴스위크가 뽑은 14가지 항목에 “사고”(thought)라는 것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에서는 “사고”가 사라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복잡한 것, 머리를 이용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스마트폰 덕택(?)에 가족들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2.5. 도덕의 타락

오세아니아에서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당에 충성할 아이들을 낳는 것이며, 아이들은 인공 수정에 의해 출산되고 공공 기관에서 성장한다. 당은 국

민들의 성욕을 제거하려 들었고 만일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를 왜곡시키거나 불결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결국 오세아니아에서 만족스럽게 행해진 성행위는 반역이며 욕망은 사상죄이다. 이는 당의 성적 청교도주의(the Party's sexual puritanism)로 당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세계를 파괴하고 성욕의 억제에서 오는 히스테리를 전쟁열과 지도자 숭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변문군 356). 만일 사람들이 만족스런 성생활을 하고 행복감에 빠진다면 빅 브라더나 3개년 계획(Three-Year Plans) 혹은 “2분간의 증오”등에 열광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벌어질 이상과 같은 일들에 대한 오웰의 추측은 올바른 것이었다. 몇 년 전에 출간된 옥스퍼드대학의 석학들이 공동집필한 “21세기 예언서”에 따르면 “21세기 인류는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섹스 없이도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인공 장기나 노화억제제를 통해 수명을 원하는 만큼 연장할 수 있지만, 스스로의 지적 창조물에 의해 정신세계를 제어당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산과 임신의 고통은 시험관 아기나 복제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인류생활에서 사라지고, 쾌락으로서의 성이 가상현실을 통해 시간과 공간마저 초월한 즐거운 오락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통신망을 통해 오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상의 인간을 원하는 섹스 파트너에게 보내 접촉이 되면 대화방에서 대화하듯이 섹스방에서 성을 즐기게 될 것이다(『주간동아』 218호). 결국 사랑 없는 섹스와 시험관 아기의 출산을 예측한 오웰의 예언은 틀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2.6. 인간성의 말살

당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까지도 여지없이 말살한다. “노동자와 동물들은 자유”(Proles and animals are free.)(62)라는 당의 슬로건에 의해 노동 계급을 동물과 동격으로 취급한다. 노동 계급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은 노동 계급은 몇 개의 단순한 규칙들에 의해 동물들처럼 복종시켜야만 할 천성적으로 열등한 존재라 여긴다. 당이 생각하는 노동자계급의 일생이란 다음과 같다.

그들(=노동자들)은 태어나고, 빈민굴에서 성장하고, 12살에 노동을 시작하고, 아름다움과 성욕에 대한 짧은 기간 동안의 좋은 경험을 갖고 난 뒤에, 스무 살에 결혼하고, 서른 살에 중년이 되고, 대부분은 예순 살에 죽는다.
(82)

결국 그들의 일생을 요약하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는 죽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그들의 몫이 아니다(변문균 357).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또 다른 인간에 의해 개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아니아에서는 반항적인 인간은 당에 의해 새로운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은 아프간 여성 아이샤의 모습을 담은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최근호 표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아프간 여성 인권과 탈레반의 잔혹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시택에서 도망친 18세 소녀 아이샤의 ‘젖값’을 묻기 위해 탈레반들이 찾아왔다. 16세에 결혼한 이후 계속 시택 식구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달아나지 않았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는 호소는 탈레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샤의 코와 귀를 자르라고 판결했다.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칼을 꺼내들었고, 귀에 이어 코를 잘라냈다. 가족의 강요에 의한 조혼, 시택의 학대 그리고 야만적인 형 집행 등 결코 수궁하기 어려운 이 같은 이야기는 10, 20년 전의 현실이 아니다. 바로 2009년 아프간 오르간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다(나길희, 『서울신문』 2010.8.05.). 한때나마 부부의 연을 맺었던 아내의 코와 귀를 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잔혹한 사회 제도와 관습,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빅 브라더라고 할 수 있다.

III. 빅 브라더의 등장과 감시 사회의 도래

무수한 문학 작품들 속 주인공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주인공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한편으로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

속해서 언급될 주인공은 누구일까?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아닐까 한다. 현대에 이르러 빅 브라더는 개인의 생활과 사상을 감시·통제하는 존재의 대명사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4에는 빅 브라더라는 독재자, 독재 권력으로 인한 개인 생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그에 대한 개인들의 맹목적인 숭배가 잘 나타나 있다. 오웰은 소설 속에서 당에 의한 대중 지배, 지속적인 전쟁 상태의 유지와 빅 브라더 개인에 대한 숭배와 사상 통제를 위한 언어의 간소화와 사고 작용의 축소, 나아가 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역사 고치기 등 전체주의적 지배가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지 오웰하면 ‘빅 브라더’를 떠올린다. 그리고 너무나 없이 빅 브라더에 의한 지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빅 브라더의 지배는 이미 시작되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휴대폰을 하나씩 갖고 있는 오늘 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 주권은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이 개인의 위치 정보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치 정보 서비스는 어린이 미아 찾기와 같은 좋은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결국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 선악이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오세아니아의 절대적인 지배자 빅 브라더는 소설의 첫 머리부터 모든 인간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전지전능하다. 모든 성공, 모든 업적, 모든 승리, 모든 과학적 발견,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행복, 모든 미덕들은 그의 리더십과 영감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그 누구도 빅 브라더를 본 적은 없다. 그는 광고판에 보이는 얼굴이며 텔레스크린 속의 목소리이다. 사람들은 그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빅 브라더는 ‘당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변장한 모습’(238)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빅 브라더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쓰는 진리부 기록국에서 일하며, 빅토리 맨션에서 살고 있다. 이 빅토리 맨션의 복도 끝에는 짙은 검은 수염을 한 근엄한 얼굴을 한 잘 생긴 남자의 초상이 걸려 있다. 각층의 승강기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포스터 속의 눈들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눈도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포스터들 밑에는 “빅 브라더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처럼 소설 시작부터 빅 브라더는 개개인에 대해 보는 듯 안보는 듯 감시를 계속한다. 또 윈스턴의 거실 오른편 벽에는 텔레스크린이라 불리는 흐린 거울과 같은 직사각형의 금속판이 붙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꺼버릴 수는 없다. 이 텔레스크린은 시청자의 생활모습을 파악하는 기능을 한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모두 파악되며 모든 행동이 빅 브라더에게 전달 되는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아도 검은 수염의 사나이는 전망이 좋은 곳이면 어디에서나 내려다보고 있다. 건너편 집에도 포스터가 붙어 있고 거기에 적힌 “빅 브라더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귀는 윈스턴에게 마치 말을 건네는 듯 했다. 또 하늘 위에서는 비행기에 의한 순찰이 진행되는데 이들은 공중에서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들을 주눅 들도록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상경찰(Thought Police)이다. 개인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감시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상경찰은 모든 사람을 언제나 감시하고 있다. 경찰들은 원한다면 누구라도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모든 소리가 전달될 수 있고 완전한 어둠이 아니고서는 모든 행동이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런 상황을 체념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상경찰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를 의심하며 생활한다. 그래서 윈스턴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 고작 텔레스크린에 대해 등을 돌려 앉는 것이다. 그러면 앞을 보고 앉는 것 보다는 적게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텔레스크린을 마주 쳐다보아야만 할 때에는 억지로라도 유쾌한 표정을 짓는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일기장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일기장 구석에 먼지 덩이를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윈스턴의 이런 노력은 헛된 것이었다. 그들은 그를 7년 전부터 감시해 왔고 일기장 위에 놓아둔 먼지마저 제자리에 둘 정도로 치밀했기 때문이다.

결국 감시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감시하는 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윈스

턴이 자신의 거실이 다른 곳과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텔레스크린으로부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은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감시망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이 텔레스크린이 장치되지 않은 곳에는 마이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런던보다 교외가 더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런던에서 100km 이내에는 여행 허가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었으나, 경찰들에게 검문당할 위험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외부적 통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2분간의 증오”에도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등장하며, 그의 잔영은 스크린 속에 남아있는 듯하다. 결국 사람들은 B-B라 외치며 그에 대한 찬양을 계속하게 된다. 윈스턴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런 열광 속에 동참한다. 왜냐하면 감시의 눈길은 주머니 속 동전에게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25센트짜리 동전을 꺼냈다. 거기에도 역시 작은 분명한 글씨로 동일한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고, 동전의 다른 면에는 빅 브라더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동전에서조차 그의 눈이 사람들을 뒤쫓고 있었다. 동전, 우표, 책표지, 깃발, 포스터 그리고 담뱃갑 포장지 등 어느 곳이나 있었다. 항상 눈들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목소리가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다. 잠이 들었거나 깨었거나, 일할 때나 식사할 때나, 실내에서나 실외에서나, 목욕을 할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 피할 수는 없다. 당신 머릿속에 있는 작은 공간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었다. (31-2)

그런데 동전에 새겨진 오세아니아의 슬로건이란 전쟁은 평화(WAR IS PEACE), 자유는 예속(FREEDOM IS SLAVERY), 무지는 힘(IGNORANCE IS STRENGTH)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당의 강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대한 감시는 사상경찰과 텔레스크린 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아이들이 집음기(ear trumpet)를 사용하여 열쇠 구멍을 통해 부모들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감시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국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사상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기상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텔레스크린의 지시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의 85%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집에는 텔레스크린이 없었

다. 경찰들도 그들은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통제 생활에 신물이 난 윈스턴은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communitary center)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뒷골목에 위치한 채링튼씨(Mr. Charrington) 가게의 2층 방을 구경하면서 완전히 혼자서, 완전히 안전한 채로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와 시계 바늘이 지나가는 소리만을 들으며 난로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은 채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기분은 어떠할까하고 상상해 본다. 그리고는 그 방을 빌리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집에서 나와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소설국(Fiction Department)에서 일하는 여자가 스쳐 지나간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겁에 질린 윈스턴은 집에 돌아와 자살을 생각한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을 보호해줄 인물로 오브라이언(O'Brien)의 얼굴을 떠올린다. 이 오브라이언이란 인물은 오웰이 창조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윈스턴의 파괴자인 동시에 구원자'(Calder 142)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을 떠올리려는 윈스턴의 노력과는 달리 오히려 동전 속에 있는 빅 브라더의 얼굴이 오브라이언의 자리를 대신한다.

빅 브라더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사상과 일상생활은 물론 일반적으로 편지 또한 모두 중간에 개봉되기 때문에 만일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미리 인쇄된 엽서 중 하나를 골라 보낼 뿐이다. 이처럼 통신상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들은 개인적으로 삭제하더라도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의 서버 상에 복사본이 남는다. 매일 자정마다 인터넷 회선 서비스 업체들은 서버 상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매일 백업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운받아 보관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들은 이 자료들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수시로 조회할 수 있고, 국토안보부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영장 대신 소환장만 제시해도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웹 사용 내역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검색 엔진에 입력된 검색어, 조회한 웹 페이지, 접속 횟수와 체류 시간,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 번호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내역도 알 수 있다. 이밖에 진료기록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남는 구매기록,

GPS 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정보와 위치가 무방비로 노출된다. 비록 사소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와 사생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박광수 21-22). 이것이 사상의 자유를 누린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빅 브라더에 상응하는 한국의 빅 브라더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al Information System, 약칭 NEIS)과 “전자정부”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홈 페이지에는 NEIS에 대해 “1만여 개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교육지원청,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G4C),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성적 처리 오류로 인해 전국에서 1학기 내신 석차·등급이 바뀐 고등학생이 모두 2만9천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고교 3학년생은 659명으로 확인됐다. 성적 석차는 전국 823개교 2만9천7명이 바뀌었으며, 그 가운데 350개교 2천416명은 이로 인해 석차 등급도 변경됐다. 석차 등급 변경자는 전체 고교생(198만여 명)의 약 0.12%에 해당한다. (임주영, 『연합뉴스』 2011.7.24) 이처럼 정보의 독점은 일이 잘못되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구호 속에 ‘정보화=선진화’라는 인식이 퍼졌고,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전산화 작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 실제로 전자 정부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 만으로 주민등록정보-토지정보-자동차정보 등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 통합된다면 개인의 건강이나 고용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가족관계는 물론 재산과 건강 상태까지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개인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는지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가 구입을 권유하는 안내장을 보내온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10개의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날인하고는 갑자기 성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선 것이다. 만일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그의 신상 모두가 낱알이 공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지문은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정보화 뒤에 숨은 이런 숨겨진 얼굴을 깨닫고 모두가 개인 정보를 소중히 할 때 조금이나마 개인에 대한 감시가 줄고,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다.

그러나 일생에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개의치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생활과 편리함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교통 카드는 자신이 돌아다니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카드 업체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약간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보급형이 아닌 고급형 충전식 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개인 생활을 감시하는 데 일조한다. 얼마 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유명철의 범행은 교통카드 칩이 내장된 스왑치(swatch) 시계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그의 시계가 그의 이동 경로와 일시 등을 밝혀줄 유력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시계에는 라디오 주파수 인식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지하철역과 도로의 가판대 등에서 금액을 충전한 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내역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접수되기 때문에 그의 행적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그가 사용하던 휴대 전화의 발신지 조회를 통해 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 일자와 내역 또한 그의 범죄 행위를 밝혀주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옴아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개인 정보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가 뿐”으로 국가만이 이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가기관이 ‘빅 브라더’로부터 개인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게 된 것이다.

IV. 희망은 있는가?

오웰은 1984를 하나의 “경고”로 생각하였으나 그 경고 자체가 좌절로 끝이 났다. 오웰은 전체주의를 역사에 정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빅 브라더와 같은 존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겼다(Deutscher 131).

원스틴이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할 반항을 하였다는 견해는 콜더도 마찬가지이다(Calder 147). 사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까지도 지배한다. 개인은 국가 체제 속의 한낱 부속품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체제에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체제 전복에 성공하기란 더욱 힘들다. 결국 전체주의 국가 체제의 출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들어선 전체주의 국가를 전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가 매년 ‘빅 브라더 상(Big Brother Awards)’를 수여한다. 1998년 처음 제정된 이 상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생활을 감시하는데 ‘기여’한 개인이나 정부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미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지로 퍼져나갔다. 이런 상이 생기게 된 것은 미국의 카니보어(Carnivore: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모든 이메일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 저자 주)나 에셀론(ECHELON: 냉전시대에 미국이 사용하던 통신도청 시스템 - 저자 주) 때문이라 할 것이다(『주간동아』 262호 참조).

거대한 힘을 가진 빅 브라더에 저항하려는 이들 단체의 시도 외에도 P2P(Peer-to-peer 또는 Person-to-Person) 운동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포털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검색자가 원하는 고급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중앙 서버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무료로 서로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들이 인터넷 사용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P2P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주간조선』 1624호 참조, 오용된 예는 『국민일보』 2004년 9월 7일자 참조) 이처럼 서로의 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유료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는 달리 www.wikipedia.org를 통해 무료로 많은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국내에서도 www.ko.wikipedia.org를 통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백과사전에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사용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나아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는 개개인과 단체의 노력이 커져갈 때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고 감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카이스트(KAIST)의 서남표 총장을 비판적으로 다룬 위키피디아 게시 글을 카이스트 총장 비서실 직원이 여러 차례 통째로 삭제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전진식, 『한겨레』 2011.7.27).

그들이 우리가 한 행동, 말 그리고 사상을 빼놓지 않고 세세히 다 캐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깊은 속마음, 우리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신비로운 속마음은 그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인간에 의해 감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소박한 생각들이 모여 빅 브라더가 우리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유스러운 것이 낫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갈 때 빅 브라더의 지배는 줄어들 것이다.

[주제어: 조지 오웰, 1984, 빅 브라더, 감시 사회, 인간성의 파괴]

인 용 문 헌

- 권경훈. 「아내 살해 완전 범죄 노린 교수」. 『조선일보』. 2011. 5. 26.
- 김도윤. 「<성폭행당했다> 親父 무고한 10대 구속」. 『연합뉴스』. 2010. 8. 19.
- 나길희. 「아프간 여성인권 잔혹사」. 『서울신문』. 2010. 8. 05.
- 박광수. 「'빅 브라더' 체제를 구축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서울: 『월간 지구촌』, 2003. 1.
- 박영수. 「'부인살해' 부산교수 '사체없는 살인' 연구」. 『문화일보』. 2011. 5. 23.
- 박홍규. 『자유_자연_반권력의 정신, 조지 오웰』. 서울: 이학사, 2003.
- 박홍환. 「'빅 브라더' 중국」. 『서울신문』. 2011. 5. 21.
- 백남선. 「인공장기-세포조작 ... 수명을 내 맘대로?」. 『주간동아』 218호(2000. 1. 20).
- 변문균. 「Anti-Utopia 소설로서의 1984」. 『미혼 조완제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서울: 미혼 조완제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0): 349-60.
- 송지연. 「사생활 보호 사이버 레지스탕스 뜬다」. 『주간동아』 262호(2000. 12. 7).
- 신재실.문상화. 『영국 소설의 흐름』. 서울: 동인, 2004.
- 이지연. 「인터넷 정보 민주주의의 신기원 열리다」. 『주간조선』 1624호(2000. 10. 19).
- 임주영. 「'나이스 오류' 고교생 2만 9천명 석차 변경」. 『연합뉴스』. 2011. 7. 24.
- 전진식. 「위키피디아 '서남표 비판글' / 카이스트 직원이 몽땅 삭제」. 『한겨레』. 2011. 7. 27.

- 하종오. 「사라지고 있는 것들 14+2가지」. 『한국일보』. 2010. 12. 17.
- 한강우. 「CCTV로 뒤덮인 중국」. 『문화일보』. 2011. 5. 19.
- 허상문. 『영국 소설의 이해』 인천: 우웅, 2002.
- 허윤. 「개인정보는 물론 대기업 문서까지 . . . P2P 통해 줄줄 샌다」. 『국민일보』. 2004. 9. 7.
- Calder, Jenni. "Orwell's Post-War Prophecy." Raymond Williams (ed). *George Orwel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133-55.
- Deutscher, Isaac. "1984-The Mysticism of Cruelty." Raymond Williams (ed). *George Orwel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4. 119-32.
- Huxley, Aldous. 『멋진 신세계』. 이덕형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88.
- Orwell, George. 1984.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3.
- _____. 『코끼리를 쏘다』. 박경서 옮김. 서울: 실천문학사. 2003.
- Tracy, Ryan. "What the Internet Killed?." *Newsweek* 2010. 12. 8.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1963.
- _____. 『조오지 오웰』. 남용우 옮김. 서울: 탐구당. 1981.

George Orwell's Insight in *1984*

Mungyun Byeon

Abstract

Everyone knows and hears the name of 'Big Brother'. This popular name is from the Orwell's masterpiece *1984*. In this novel, we can easily understand the situations of Oceania (or England). Individual life is demolished and the family ties are destroyed. History and documents are corrected according to the present situation. The meaning of language is changing and the numbers of the words are diminishing day after day. People of Oceania are rarely thinking about their situations. Their thinking abilities are diminishing, too. People do not have a clear sense of morality. And they seem to be losing their humanity slowly. These kinds of situations are happening in China, Korea and other countries nowadays. So we can think very highly of George Orwell's insight.

Orwell intended *1984* as a warning. He was frightened of the advent of totalitarianism and the surveillance society. He saw totalitarianism as bringing history to a standstill and Big Brother was invincible. He worried about the system being common in the future. The totalitarian countries and surveillance societies are around us, NOW. We can prove this with the many examples all over the world.

Big Brother knows the utmost detail of everything that you did or said; but the inner heart remained undetectable. We can say that out loud 'We don't want to be watched by any other human being.' It's better to be free rather than controlled by somebody. And nothing is impossible once we set out firm resolution.

[Key words: George Orwell, *1984*, Big Brother, surveillance society, demolition of humanism]

논문투고일: 2012년 06월 05일

논문수정일: 2012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06월 23일

전자우편: prnhanl@naver.com